

판소리의 유파적(流派的) 고찰(考察)

文化財委員會委員 劉 起 龍

판소리는 우리 민속음악(民俗音樂) 가운데서 오랜 전통과 찬란한 업적을 지니고 있다. 민속음악의 다른 분야에서도 귀중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많으나 판소리는 엄격한 체통(體統), 섬세한 법통(法統)이 있으면서 또한 높은 차원의 음악적 규범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5년 10년 정도의 수련을 쌓아가지고는 결코 일가(一家)를 이룩할 수가 없으리만치 수업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한국 민속음악사에서 판소리의 비중이 너무도 크고 판소리 계보(系譜)에 새겨진 전래(傳來)의 명창 수효도 이루 헤아릴수 없으리만치 불후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그리고 판소리에서 특기될 점은 전통예술에서 으레 있어야할 특색의 계열 즉 유파적 존재가 어느나라 것에도 손색없이 뚜렷한 많은 유파(流波)들이 원형 그대로 오늘에 전승(傳承)되고 있다. 이것은 무형문화 보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판소리 자체의 높은 예술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파는 한 개의 근원(根源)에서 갈라지는 계통을 말한 것이므로 지금 판소리 가창(歌唱)에서 전승되는 유파는 다음과 같다.

판소리에서 크게 분류하고 있는 유파.

1. 동편제(東便制)
2. 서편제(西便制)
3. 중고제(中高制)
4. 강산제(江山制)

이상은 기간유파기간(基幹)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작은파 [세파(細派)]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봉황제, 석화제등은 조(調)라고도 말할 수 있다.

5. 경제
6. 덜렁제
7. 봉황제
8. 석화제
9. 반드림제

그리고 판소리의 큰 유파와 작은 파에서 표현방법을 달리하는 많은 조(調)가 있다.

동편제에서

- ① 평우조
- ② 진우조

서편제에서

- ① 평계면

② 진계면

③ 단계면

경제에서

① 완조경제

이런 것이 전승되고 있다.

판소리를 일견(一見) 하여서는 단순한 고저와 장단 강약과 기교로만 그 구조를 안이하 게 평가하고 있으나 내면에서 활용하고있는 다양한 섭리 다원적유파(多元的) 그리고 장단의 능용성(能用品性)등 높은 음악성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불행하게도 판소리에 관한 문헌(文獻)과 전탁(前拓)이 없기 때문에 판소리 연구에 큰 난관이 있다. 다만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온 구승구전(口承口傳), 이런 것을 집약하는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 집약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는 별개 문제로 하고 우선 많은 사람에서 다수의 공통점에서 얻어진 결론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1) 동편제

개념

동편제를 일명 호령제 또는 호걸(豪傑)1제라고 이칭(異稱)하고 있다. 보통 대화 형식에서 호령(號令) 또는 호걸스럽게 의사를 표시할때는 자연 어세(語勢)가 강열하고 활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판소리에서 이러한 조직 형태로 형성된 선율로 표현하고 있는 가류(歌流)를 동편제라고 한다. 동편제에서 다시 소리를 만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조(調)가 있다.

① 진우조

동편을 우조 서편을 계면 이라 흔히 쓰이고 있으나 우조와 계면은 어디까지나 가곡(歌曲)계의 용어로서 근래에 와서 일반 민속음악에서 편의상 행용한 것으로 동편 서편의 뜻과는 내용에 있어서 다르고 있다. 판소리에서 진우조라고 하는 것은 동편제 소리 가운데서 호령성을 지니고 있는 농도가 유난히 깊은 대목을 진우조로 표현한다. 적벽가(赤壁歌) 중에서 예를들면 「당당한 유현덕이……」 라는 대목 춘향가(春香歌) 중에서 예를들면 「만첩청산 늙은 범이…」 등의 대목이 진우조 더늠이 되고 있다.

② 평우조

평우조는 평시조(平時調)의 선율을 따서 판소리에다 응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춘향가에서 「적성아침날은 늦은 안개는 떠워있고 록수저문 봄은 화류동풍 들렀난 데…」의 대목이 평우조 더늠인 것이다.

③ 가곡성우조

가곡성우조는 동편제에서 가곡성음을 판소리에 응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춘향가에서 「박석고개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예보던 청산이요 물도 보던 물이로구나…」의 대목이 동편제에서 가곡성우조 더늠이다.

지역(地域)

동편제와 서편제를 지역으로 따진다면 우리 나라 중부에서 남부에 이르기 까지를 양분하여서 동편쪽이 되는 경상지방이 동편제 지역이 되고 전라지방이 서편제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판소리 고장인 전라도를 두고 생각한다면 전라북도 함열(咸悅)을 기점으로하여 전라남도 남쪽 해남(海南)에 이르는 옛날 국도(國道)를 기준으로하여서 역시 동편쪽을 동편제 고장으로 우편(右便)쪽을 서편제 고장으로 삼아왔다. 옛날에 좌창평우장성(左昌平右長城)이란 말은 바로 좌우의 한계점을 말한 것이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역졸 분발에 따르면 좌도로는 여산(礪山) 익산(益山) 함열(咸悅) 용안(龍安) 임□(臨□) 옥구(沃溝) 김제(金提) 만경(萬頃) 고부(古阜) 흥덕(興德) 고창(高敞) 무장(茂長) 영광(靈光) 나주(羅州) 영암(靈岩) 진도(珍島) 수영(水營) 강진(康津) 해남(海南) 다시 우도(右道)로는

금구(金溝) 태인(泰仁) 정읍(井邑) 광주(光州) 화순(和順) 낙안(樂安) 흥양(興陽) 구례(求禮) 곡성(谷城) 순천(順天) 광양(光陽).

이렇게 좌우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재래 판소리계에서는 구분의 한계가 약간 다르고 있다.

여기에서 우도는

이리, 김제, 만경, 고부, 군산, 광주, 담양, 흥덕, 고창, 영광, 남평, 나주, 강진, 해남 좌도는

함열, 전주, 임실, 남원, 운봉, 무주, 진안, 장수, 창평, 옥과, 구례, 곡성, 순천, 광양, 보성, 고흥 등등

이상은 전하는 말에 따르는 것으로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으나 여하튼 좌우도는 함열을 기점(起點)으로 해남에 이르는 동쪽 서쪽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전라도를 판소리 고장이라고 말한 것은 판소리기원(起源)에 까지 생각을 두어서 밝힌 것이 아니고 계보상(계보(系譜))으로 밝혀진 다수의 명창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징

- ① 동편제소리는 소리 마디마디가 분명하게 떨어져서 마치 도끼로 큰나무를 패듯이 쟁쟁 울린다. 이런 것을 벌목정정(伐木丁丁)격이라고 한다.
- ② 동편제소리는 소리의 끝이 내려까붙아지지않고 매양 드높게 들어 올라가는 것이다.
- ③ 동편제소리는 소리에 잔재주가 들지 않으며 긴빨래를 널 듯이 쪽쪽 펴서 뻗어나가야 한다.

※노랑목(장식음색)은 금물이다.

□동편제의 대표적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에는 거반닐리 동편제 또는 서편계열이 고루 섞여져 있으나 그중에서 동편제가 많이 활용된 것은 「적벽가」가 대표적이다.

□동편제의 주요 가객(歌客)

권삼득(權三得) 영정 전북익산인(英正 全北益山人)

송흥록(宋興祿) 순헌 전북운봉(純憲 全北雲峰)

방만춘(方萬春) 순조 충남해미(純祖 忠南海美)

송광록(宋光祿) 헌 전북운봉(憲 全北雲峰)

주덕기(朱德基) 순헌 전남창평(純憲 全南昌平)

송우룡(宋雨龍) 철 전남구례(哲 全南求禮)

김세종(金世宗) 철고 전북순창(哲高 全北淳昌)
 박만순(朴萬順) 헌철고 전북고부(憲哲高 全北古阜)
 정춘풍(鄭春風) 철고 전북여산(哲高 全北礪山)
 장자백(張子伯) 철고 전북순창(哲高 全北淳昌)
 박기홍(朴基洪) 고순 전남나주(高純 全南羅州)
 송만갑(宋萬甲) 고순 전남구례(高純 全南求禮)
 이동백(李東伯) 고순 충남비인(高純 忠南庇仁)

2) 서편제

□개념

서편제는 동편제와 반대로 일명 애원성 설음제 등으로 말하고있는 것처럼 소리가 부드럽로우면서 애절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판소리에서 동편제가 팔팔한 반면에 서편제는 애타고 구성지다할 수 있고 또한 멋이 있다 한다. 서편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調)가 있다.

① 평계면

평계면은 계면조이지마는 시조에서 평조를 연상케하면서 판소리 독특한 애절하고 유장한 맛을지니고 있다.

예를들어서

심청가중에서 심청화상(畫像)을 그리는 대목이 평계면에 속한다.

※평계면 또는 진우조 이러한 표현은 양악(洋樂)개념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판소리 또는 일부 민속악에서 오랜 세월속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도 정립되어져 있는 것이다.

② 진계면

진계면은 계면의 본질의 농도가 가장 짙은것으로서 이것의 특징은 「시나위」 성음이 반드시 곁들여 있는 것이다. 「시나위」 성음은 무악에서 살푸리성음 또는 도살푸리성음을 말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원 애원 호소 탄식과 같은 표현을 주로 하고 있다.

진계면소리 대목은 예를들어

심청가중에서

「눈어둔 백발부친 눈을 감고 가가문전 다니시며…」의 대목등이다.

③ 단계면

단계면은 평계면 진계면에 비교하여서 계면이지마는 어느정도 가벼운 맛을 지니고 있으며 단계면의 장단은 주로 중모리계에 속한다. 그러나 진양조에도 있다.

단계면 소리로는 예를들어

춘향가중에서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막옥방 찬자리에 생각난 것은 님뿐이라…」

또는

「행군건월 상심색하니 달만보아도……」

홍보가중에서 「박타는 더듬에 단계면으로 진양조대목이 있다.

「왕왕 연하다…」 등이 단계면 더듬이며 왕년의 명창 임방울(林芳蔚)은 특히 단계면에 유독 능하였다.

□지역

남도 서부지방(호남우도)을 서편제 지역으로 삼고 있다.

농악에서도 좌도굿, 우도굿으로 구별하고 있다.

□특징

① 동편제소리가 끝을들어 올리는가 하면 서편제에서는 소리끝을 내려 높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사성(四聖)에서 하성(下聲)과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다.

② 동편제소리가 동강 똑똑 떨어지고 있는것에 반하여 서편제소리는 될수 있는데로 소리를 길게 이어감으로 이것을 소위 사풍세우(斜風細雨)격이라고 열분바람에 비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③ 서편제 소리에서는 되도록 「붓침」을 많이 활용한다. 서편에서도 노랑목(청을 도중에 바꾸는것)은 안되며 소리에 꼬리를 달아서도 안된다.

④ 판소리를 할 때는 으레끔 「발림」이라고 하여서 소리에 맞추어 행동과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발림」은 동편제 소리에서는 취하기가 어려움지마는 서편제소리에서는 「발림」의 여유가 있어 얼마든지 수반될수 있다.

□서편제의 대표적 판소리

오(五)마당판소리는 서편제 명창이건 동편제 명창이던 능히 가창할 수 있다. 다만 서편제명창은 어딘지 서편제 특징이 다분히 감돌아 있으나 이에서도 호령성 같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편제특징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판소리에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심청가라고 할 수 있다.

마. 서편제의 주요가객들

- 김성옥(金成玉) 순조 충남강경(純祖 忠南江景)
- 신만엽(申萬葉) 헌철 전북여산(憲哲 全北礪山)
- 주상환(朱祥煥) 헌철 전남창평(憲哲 全南昌平)
- 이날치(李捺致) 헌철 전남광주(憲哲 全南光州)
- 정창업(丁昌業) 철고 전남함평(哲高 全南咸平)
- 김창환(金昌煥) 고순 전남나주(高純 全南羅州)

3) 중고제

□개념

중고제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특징을 합한것도 아니며 또한 두 개의 특징을 절충한 것도 아니다.

다만 동편제 서편제의 중간위치에 놓여졌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충분한 해설은 못된다. 중고제는 동편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반음(半音)을 많이 쓰고 있다.

판소리에서는 그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동서편으로는 될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이룸해서 중고제라고 설정한 것 같다.

□지역

중고제는 지역 한계가 없다. 일부에서 경기충청(忠淸)을 중고제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리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다. 특징

① 중고제는 중앙성을 바탕으로 한다. 판소리에서는 상성 하성 중앙성으로 말하고 있다.

② 중고제는 소리의 음세(音勢)가 단계적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특색이다. 중고제의 높은 음계는 다른 제에서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중고제와 탈령제는 같은 규범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③ 중고제는 음계적 차이(差異)가 선명하고 격차가 심하고 있다. 중고제도 동편제와 같이 소리를 항상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고제의 판소리

중고제는 오(五)마당 판소리 안에 고루 섞여져 있어서 어느것이 대표적이라고는 규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수궁가에 중고제가 많이 삽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어서 수궁가 중에서

「임자없는 특수청산…」

춘향가 중에서

「어사 행장을 차리는구나…」 심청가 중에서 「곽씨부인 그날 품팔아 모인 재물…」 이런 대목들이 중고제 인 것이다.

마. 중고제의 주요가객들

일설에는 한송학(韓松鶴)[철종(哲宗)때 가객(歌客) 수원인(水原人)] 김정근(金定根)[철종(哲宗)때 가객(歌客) 충남강경인(忠南江景人)]등을 중고제의 명창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동편제 서편제 명창으로 성량(聲量)이 풍부한사람은 원칙적으로 중고제에 능한 것이다.

4)강산제

□개념

강산제는 본래 서편제계열의 명창이던 철종때부터의 가객 박유전(朴裕全)이 처음 개발한 것이다.

박유전이 전남 보성군강산면(寶城郡江山面)에게 오랫동안 거주 한 것을 인연하여 강산제라고 명칭 한 것이다. 박유전은 대원군(大院君)에서 남달리 총애를 받은 가객이었으며 그 자신도 청빈(淸貧)하고 의젓한 예술가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그에서 발산하는 가풍(歌風)도 다른 판소리 가풍에 비교하여 온건하고 의젓한 맛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대원군 사랑방에는 경향각처에서 모여든 유학자(儒學者)들에게서 여러가지 면으로 의견과 훈수받은 영향력에서 박유전은 종래의 서편제 일변의 형질(形質)을 벗어나 새롭고 특색있는 강산제를 개발 형성한 것이다.

판소리계에서 후일 명창 송만갑(宋萬甲)이 원래의 동편제 가통(歌統)을 이탈하고 독특한 자기류(自己流)를 창작하여 한동안 물의를 비등케 하였으나 송만갑 특이한 가풍은 일세를 풍미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송만갑 더늠과 박유전 더늠이 가장 성행되고 있는 것은 전통예술의 계승 방향에서 주요한 자료로서 생각지 않을수 없다.

□지역

전라남도가 그 중추라고 보아진다.

□특징

① 강산제의 성음적(聲音的) 특징은 애통치절한 성음을 피하고 되도록 순평한 성음으로 대치하고 있다.

계면조에서도 가냘픈 이날치(李捺致) 성음 같은 것을 일체 구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

편을 우조에 가까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강산제는 소리에서 특히 「붓침」의 묘(妙)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고수(鼓手)가 강산제의 진수(眞隋)를 체험한 후에는 다른 가풍에 흥미를 못가질 정도로 판소리 장단에 있어서 붓침력에 특징이 있다.

판소리 장단에서 기교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완자거리」 「잉애거리」 「괴대죽」 그리고 까다로운 「세마치」 장단 같은 것이 이 강산제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③ 강산제 판소리 가사(歌辭)에도 전술한 유학자들의 영향력같은 것이 작용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기준에다 부심하여 예를들어 춘향가에서 「오리정이별」 대목은 전부 삭제하고 있다. (육례를 안 갖춘 처지에서 이별차 오리정까지 바라다 줄 수 없다는 것)

□강산제의 판소리

강산제는 동편제 서편제와 같이 판소리구조(構造)에 근본적 특이성(特異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 특색있는 가풍이기 때문에 어느 판소리 에서도 이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강산제 특징이 뛰어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심청가이다.

□강산제 주요가객들

강산제 창시자 박유전(朴裕全) 현철고 진복순창(憲哲高 全北淳昌)
그를 계승한 정응민(鄭應珉) 전남보성(全南寶城)

5)덜렁제

□개념

덜렁제는 이름의 문자 그대로 덜렁 거리는 조형(調形)을 말한 것으로 판소리에서는 대단히 이채(異彩)로운 선율형이다. 덜렁제는 몹시 뿔뿔뿔한 그리고 기세를 부린듯한 무골적(武骨的)인 표현을 말한 것이다. 전하는 바에의하면 영조(英祖) 때 가객으로 8명창의 제1위에 있는 권삼득(權三得)이 시창(始唱)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선율은 옛날부터 전해져서 내려온 근마성(勤馬聲)임금이나 고관(高官)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할 때 그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 행렬앞에서 역졸이나 사복(私僕)이 가는 목청을 길게 빼내서 부르던 소리(민간에서는 혼인 행차때에 뒤따라가면서 부르는 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

덜렁제는 「설렁제」 라고도 한다.

덜렁제는 5마당 판소리 가운데서 호기를 부린다든가 제멋대로 뿔내는 장면에서는 으레 덜렁제로 표현한다. 덜렁제 성음은 동편이 가까우다.

홍부가중에서

「놀부가 역군을 데리고 제부 후리려 나가는 대목」

심청가 중에서

「남경선인(南京船人)들이 15세 된 낭자(娘子)를 산다고 외치는 대목」

적벽가 중에서

「목니 있게 생긴 한 군사가 여러 군사를 꾸짖고 나온다…」는 대목.

춘향가중에서

「군노 사령(軍奴使令)이 춘향 잡으러 가는 대목」

수궁가중에서

「벌떡계가 용왕께 장담하고 나온다」의 대목등이 덜렁제 더늠이다.

옛부터 판소리 가객이 덜렁제 대목을 부를때면 으레껏 권삼득제라고 못박아 내려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에 전승된 것이다.

□지역

따로 없다.

□특징

- ① 덜렁제는 호기를 뽑내고 거들음은 피는듯한 선율이어서 장단은 중중 모리 또는 자준 모리 형이 많은 것이다.
- ② 소리의 기교면에서 다른것에 비하여 단순한 것으로 별로 어려운 것이 없고 하성(下聲)에서 상성(上聲)으로 조약하는 음정이 많아서 감각적으로 경쾌감을 준다.
- ③ 덜렁제는 중고제의 기원(起源)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으며 권마정에서 발전한 「추천목」(鞦韆)이 있다고도 한다.

□덜렁제 주요가객들

따로있지 않다.

6) 경제

□개념

경제는 헌종(憲宗)때 경기도 여주(驪州) 명창 강계달(康季達)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라 되어져 있다. 그리하여 경제는 경(京)자로 쓰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의 특징이 가벼운데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성(四聲)에서 경성(經聲)의 경(輕)자로 여기고 있는 편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의 형질은 사실상 가벼운 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희롱조(戲弄調)적인 서울사투리가 섞여져있는 것으로보아 더군다나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경기(京畿)인 이어서 판소리에서 경제에서는 서울 냄새가 나고있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경제 성음은 서편에 가까움다.

판소리에서 덜렁제가 뽑내고 덜렁거리는 거동을 표현하는 음조라면 경제는 약간 경망스럽고 까블고 희롱을 표현한 음조라고 할 수 있다.

5마당 판소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비웃는 대목은 대개 경제를 쓰고 있다.

경제에서는 또하나의 「완조경제」라고 하는 특색이 있다.

「완조경제」는 같은 경제이지만 기왕이면 멋이 있는 전라도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전하고 있다.

춘향가중에서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사도가 모지도다…」 대목이 완조경제 더듬이다.

□특징

- ① 판소리에서 경제의 선율은 덜렁제와도 같이 단순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출한 더듬이나 붙임이 따로 없고 소리가 계곡에서 물이 흐르듯이 맥근하기 때문에 음정에서 위착을 갖는 것이 흔히 있다.
- ② 경제는 대개 중모리 장단이 중심이다.

□경제의 더듬

경제는 덜렁제와도같이 동편제 서편제등의 큰 유파가 아니고 특색있는 선율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판소리 가운데 군데군데 들어 있는 것이다.

춘향가중에서

「어사 춘향모집 문전에 짓어가 수작하는 대목」

「옥중 춘향에게 오나 춘향아 우지마라 마라 우지를 마라…」 이런 대목들이 경제의 더
듬이다.

마. 경제의 주요가객

염계달(廉季達) 순헌철 경기여주(純憲哲 京畿驪州)

송만갑(宋萬甲) 고순 전남구례(高純 全南求禮)

7) 봉황제

전술한바와 같이 봉황제도 판소리에서 유파가 아니고 판소리에서 특수한 선율형태 즉 한
개의 조(調)에 불과하다. 그리고 봉황제는 널리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
승도 미약한 것이었다. 봉황(鳳凰) 새의 자웅성(雌雄聲)을 국악(國樂)에 상징음(象徵音)으로
여기고 있다. 봉황제 성음은 중고에 가까우다.

판소리에서 봉황조는 매우 담담하고 의젓한 더듬으로 되어져 있다.

춘향가중에서

「방자 춘향집을 가르키면서, 저 건너 송림(松林) 숲사이로…」

적벽가중에서

「그때 조자룡 거동보아라…」 대목들이 봉황조의 일례(一例)이다. 지금 봉황조 가락이 가
야금산조에서도 전승되어지고 있으나 이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불충분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연구개발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8) 석화제

석화제도 판소리에서 봉황조와같이 한가다 조(調)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창극사(朝鮮唱劇
史)에 따르면 철종(哲宗)때 명창 김계철(金啓喆) 충청도인(忠淸道人)이 처음 개발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

석화제의 명칭에 대하여는 아직도 그 발상연유를 알수가없다. 다만 이제의 특징은 일반
판소리에서 비교하여서 유달리 「리듬미랄」 한 것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약 100여년전 박팔
괘(朴八掛)[충북괴산인(忠北槐山人)]가 처음 개발한 가야금병창(伽倻琴併唱)제에서 바로 이
판소리 석화제를 활용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석화제 성음은 중고에 가까우다.

판소리에서 석화제는 예를 들어서

수궁가중에서

「가자 가자 어서가 이수건너 박노가 초강어부빈배에 자라등에 저달신고 우리고향 어서
가…」의 대목이다.

9) 반드림제

반드림제 의 특징은 동편제(東便)와 서편제(西便)의 절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리가 매
우 매근 하면서 멋이 있다. 이날치계(李捺致系)의 김채만(金采萬)이 이제에 능(能)하였으
며 오늘에도 전승(傳承)되고 있다.

이상으로 대체적인 판소리의 유파에 대한 고찰(考察)을 마치고 참고삼아 강산제심청가(江
山祭沈淸歌)(지정보유자정권진제보(指定保有者鄭權鎭제보))로 조(調)의 형태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우조(자근중중모리)

썩바누질 관대도복 향이창이 증령이며…

- ② 평우조(중모리)
 꺾씨부인 그날부터 품팔아 모은 재물
- ③ 평우조(자근모리)
 석불정 부좌 활부정 불식 이불정 음성...
- ④ 우조(자근모리)
 삼신산천 도솔천 삼신 제왕님네...
- ⑤ 진계면(진양조)
 가군의 손길잡고 유원하고 죽드니라 아이고 여보 가군님 내 평생 먹은 마음...
- ⑥ 평계면(중모리)
 앓차 앓차 내 잊었어요 저 아이 이름일랑 칭이라 불러주오...
- ⑦ 계면(자근중중모리)
 심봉사 기절하여 떳다 절켜 주저앉으며...
- ⑧ 평계면(중모리)
 요령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넘차너...
- ⑨ 단우조(중중모리)
 어늬 어늬 어늬차 너와넘...
- ⑩ 계면(진양조)
 주과 포예 박자니나 만사를 모다 잊고...
- ⑪ 계면(중모리)
 집이라 돌아오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안은 텅텅 비었는데...
- ⑫ 평계면(중중모리)
 등등 내 딸이야 어허등등 내 딸이야...
- ⑬ 중고제(중모리)
 삼베전대 외동지여 여원 어깨 들어 메고...
- ⑭ 단계면(중모리)
 아버지 들조시오 잘오는 현인으로,
- ⑮ 평계면(늦은중모리)
 심청이 거동보아라 밥을 빌러 나갈적에...
- ⑯ 평계면(잡은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진지 어서 잡수시오...
- ⑰ 가곡성우조(진양조)
 시비따라 건너간다 무릉춘을 당도하니...
- ⑱ 평우조(단중모리)
 계상에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하야
- ⑲ 평계면(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붙고 방은 추워 한기 들체...
- ⑳ 평우조(자근모리)
 이래서는 안되겠다 달은 방은 훌적열고...
- 평우조(엇모리)
 중올라온다 중하나 올라간다...
- 평우조(자근엇모리)

- 저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어...
- 단계면(중모리)
허허 내가 미쳤구나 정녕 내가 사가 들렸네...
 - 계면(자준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 들어서며 저의 부친 모양보고 깜짝놀래...
 - 평계면(중모리)
아버지 이게 웬 말씀이오 모친 별세한 연후에...
 - 경계면(중모리)
아버지 듣조시오 왕상은 고빙하여,
 - 계면(진양조)
후원에 단을 모아 복두칠성...
 - 중고제(중모리)(덜렁제)
하로는 문 밖에 외는소리 울리는 남경선인...
 - 진계면(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부친 영결하고...
 - 단계면(중모리)
한양낙일 수만리는...
 - 계면(자준모리)
심청이 거동보아라 부친 앞으로 우루루르...
 - 우주 단계면(중모리)
허허 이것이 웬 말이나...
 - 평계면(진양조)(세마치)
시비따라 건너간다 신세자탄 우는 말이...
 - 평계면(중모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 가곡성우조(진양조)
범피중류 두등실 떠나간다...
 - 평우조 평계면(중모리)
한곳을 당도하니 광풍이 일어나며,
 - 평계면(진양조)
배우밤이 몇밤이며 물루날이 몇날이며...
 - 평우조 단계면(엇모리)
한곳을 당도하니 이는 곧 입당수라.
 - 가곡성우조(진양조)
해당 풍랑을 쫓고...
 - 평우조(엇모리)
이도 장할시고 선상선역선관들이...
 - 평우조평계면(진양조)
오색 채단을...
 - 시나위(중모리)
복을 두리등 올리면서 슬픈 말로 제 지낸다

- 평우조평계면(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 평우조(단중모리)
천자보시고 대위하시사 저꽃이 무슨꽃이나...
- 평계면(진양조)
추월만정하여 산호주렴이 빗겨들제 청천에 뜬 기러기는...
- 평계면(진양조)
그때의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았구나...
- 단우조(자준모리)
밥 잘먹고 술 잘먹고 고기 잘먹고 떡 잘먹고...
- 평계면(중모리)
도아동아 잘있거라 무릉촌아 잘있거라...
- 진계면(진양조)
허허 뺨대기네가 갔네 그려...
- 평계면(중모리)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 우조(중중모리)
천리시내는 청산으로들고 이골 물이 주루르르...
- 계면(중모리)
어허 이제는 꼭 죽었네...
- 평우조(중중모리)
어허 유아 방아여...
- 단우조(자준모리)
어허 유아방아여 어허 유아방아여,
- 덜렁계(중중모리)
어전 사령이 나온다.
- 평계면(진양조)
이 잔치 배설기는 불쌍하신 우리 부친...
- 평계면(중모리)
예 소맹이 아뢰리다...
- 진계면(자준모리)
시황우 기가 막혀...
- 평우조(자준모리)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 평계면(중모리)
웁지 인제는 알았구나...
- 평우조(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나 어둡침침 빈방 안에 불킨 듯이 반갑고...
- 평계면(엇중모리)
그때의 심생원은 부원군을 봉하시고...
이상 서편제의 대표적 판소리 심청가를 전래전승(傳來傳承)하는 그대로 가류의 조를 살

펴보았다.

심청가에는 어디까지나 계면조가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조사한 심청가는 강산제(江山祭)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계면보다 평계면 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적조사가 판소리의 유파적고찰(流波的考察)에서 큰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믿는 바이다.



<page 50 사진>